

동김녕(東金寧) 송덱(宋宅)의 송동지 영감 송선주(宋同知令監宋船主)가 살아실 때, 사또(使道)의 명(命)을 받아 단섯돌¹⁾ 구름 당해야 송동지 영감이 상서월²⁾ 상시관(上試官)에 진상(進上)을 바찌 려 갑데다. 산(山)으로 초기(樵楫) 헤강(海角)으로 우미(天草) 전각(青角) 메역 펜포³⁾ 진상을 바찌 두고 송동지 영감(宋同知令監)이 한고향(還故鄉)으로 돌아올 때, 광청[？]을⁴⁾ 들고 싶어, 광청[？] 을 허정승덱(許政丞宅)의 주인(主人) 멋어⁵⁾ 저녁상을 받고 나니 날은 먹정[？]찌 어둑어지고 창문 밧길⁶⁾ 바레여 보니 모든 집안 초경증(初更一)이 고이 든 밤에 이상[？]게도 초이경(初二更)이 넘어 삼경(三更)이 근당허여도 즘이 아니 든다.

？꼽[？]하게 알았다가 금마답에 나오라⁷⁾ 동서(東西)레레 수방(四方)을 두리두리⁸⁾ 바레여보니, 이 상[？]게도 문밖[門外] 사랑깐에 희미한 불빛이 비추와, 송동지영감이 발자국을 죽여가며 숨절소릴⁹⁾ 누추와가며 문 곳에¹⁰⁾ 추추(次次) 몸을 부찌 사랑방을 바레여 보니, 어여쁜 아기씨가 총각머리 풀어놓고 멋을 알아 생각[？]는 듯 마주 창문 밧[窓門外]를 내다보아, 송동지영감이 아기씨 모르게 뒤틀어사저 흐니, 광창문(廣窓門)을 울멍¹¹⁾ 아기씨가 말을 하뒈.

“제주(濟州) 송동지영감님, 흐실 말이 있사오니 어서 바삐 문안으로 들어오십서.”

송동지 영감 어찌할 수 엇어, 마음이 중천(衝天)하고 가심[胸]이 뛰여 온 몸을 달달 털멍 가단¹²⁾ 몸을 돌려 아기씨 방안으로 들어가 몸을 주츠려 앗았더니¹³⁾ 아기씨가 말을 흐뒈,

“겁내지 말양 펜(便)히 앗입소서.”

미릇¹⁴⁾ 올 줄이나 안 듯이 술상을 출려놨다 얼른 앗다놓고¹⁵⁾.

“나가 이 밤중까지 영감님이 나오카¹⁶⁾ 허여 창문밧을 슬피는 중, 영감님이 나광 뜻이 맞인 듯 이 이제[？]지 즘이 안오시고 오죽이나 심심[？]하기 여[？]지¹⁷⁾ 왔습네까. 즘도 아니오시고 이 술 한잔을 드시와 나의 뜻대로 심심풀이나 흐기 어찌오리까?”

“어서 그리 흡시다.”

훈 잔 술을 거부¹⁸⁾ 먹는 게 술이 만족한 것 그따지고, 아기씨가 말을 하뒈.

“나는 허정승(許政丞)의 뜄님으로 총각머리 등에 진 처녀(處女)이건만 광청[？]을 안 궁녀(宮女)의 몸으롭써 장초(將次) 부모의 맹영(命侖)대로 혼연(婚姻)을 허여사 할 몸이고 영[？]난¹⁹⁾ 이 앞으

1) 단섯돌 : 섣달을 일컫는 말.

2) 상서월 : 상(上)서울.

3) 펜포 : 오징어.

4) 광청[？]을 : 미상 지명.

5) 주인 멋어 : '주인멋다'함은 유숙(留宿)하다의 뜻.

6) 밧길 : 밖을.

7) 금마답에 나오라 : 마당에 나와.

8) 두리두리 : 두리번두리번.

9) 숨절소릴 : 숨결소리를.

10) 곳에 : 가(邊)에.

11) 울멍 : 열면서.

12) 가단 : 가던.

13) 주츠려 앗았더니 : 움츠려 앉았더니.

14) 미릇 : 미리.

15) 앗다놓고 : 가져다 놓고.

16) 나오카 : 나올까.

17) 여[？]지 : 여기까지.

18) 거부 : 거푸.

로 혼연을 헤쳤던 혼민(混民) 나가 그 행동(行動)을 한번 헤고 싶으오니, 서로 반대(反對)로 나의 입성[衣服]은 영감이 입곡 영감의 입성은 나가 입영 놈도 자는 야밤에 단둘이서 이 날이 새도록이라도 새각씨놀이²⁰⁾ 헤기가 어찌 헤오리까?”

술에 만족한 송동지 영감(宋同知令監) 데답(對答)만 예예 헤다 보니, 어느 속이 내 몸이 벤색(變色)이 됐고, 연분홍저구리에 대홍대단(大紅大緞) 연분홍치매에 구실족도리²¹⁾ 꽃족도리가 머리 우의 오른 것 같았고, 나 눈 앞인 보니 입넙은²²⁾ 짓갓에²³⁾ 베도폭(白道袍)을 둘러입어 신쌀 품체[扇]로 앞을 막아 사 이서, 서로 눈천을²⁴⁾ 바레다보니 인연(因緣)이 뚝 들어맞인 듯허여진다.

아기씨도 올바른 정신(精神)이 간 곳 엊어지고, 물멩지(一明紬) 한삼(汗衫) 붓잡아 얼음 끌든 손질을 마주 잡았더니 이맹이²⁵⁾ 족도리도 벗어지고 연분홍 다홍치매도 벗어져, 아기씨 입넙은 짓갓도 벗어지고 베도폭(白道袍)을 벗어자쳐 꿈결 끌찌 지나는 게, 송동지영감도 시상(世上)이 나 시상이고²⁶⁾ 광청아기도 영감의 신원(伸冤)과 원정(原情)을 다 들어준다.

먼동이 뇌엄 들려²⁷⁾ 개 쥐도 모르게, 송동지영감 이녁[自己] 이불 쏘곱으로²⁸⁾ 돌아와, ‘장초(將次) 이 일이 어찌 될 일인고.’

아침 밥상이 들어오고 허정승(許政丞)을 이별(離別)하야 먼 문 밖[外] 나사고 영암(靈岩) 덕진드리 베진고달또 포구(浦口) 안??지 오도록 자국 자국 생각허여도 꿈인가 생중(生中)인가.

베진고달또 배[船]를 노아 한고향(還故鄉)을 돌아오라²⁹⁾ 동안 안[東軒內] 관원(官員)에 원정(原情)을 들고, 따시 두번차 상시관(上試官) 진상(進上)을 바쩌두고 누려올 때, 광청을 허정승댁에 또시³⁰⁾ 주인(主人)을 멋어 ‘이 날이 어느 제민³¹⁾ 어둑으리.’³²⁾ 지드리다 그 날이 제우³³⁾ 어둑어져, 광청아기 스랑방을 돌려든다.

돌려들어 보니 아기씨 비옥(翡翠) 끌든 양지엔³⁴⁾ 서산(西山)에 비지듯이 눈물을 흘리멍.

“자, 이 일을 어찌 헤민 조오리까?”

아기씨 흰 얼굴이 검은 얼굴 됐여지고 배[腹]는 태독[大瓮] 끌찌 불어지고 송동지 영감(宋同知令監) 베도폭[麻道袍] 자락을 붓잡아놓고 노을 줄을 몰라지고 옮으로 초이경(初二更)이 근당(近當) 혔다.

그 때 시절, 육짓사름[陸地人] 제주(濟州) 못오고 제주여자(濟州女子) 육지 못갈 때난, 송동지 영감 아기씨 베도폭자락 노은 틈을 얼른 타, 창문 밧걸³⁵⁾ 내들아 아무말 엇이 영암(靈岩) 베진고달또 누려오라 벗장 알에 앗았더니, 아기씨는 이날 밤을 새우민 아바님 손에 죽을 생각해야 흰비

19) 영후난 : 이리하니. 이러니.

20) 새각씨놀이 : 색시놀이.

21) 구실족도리 : 구슬족두리.

22) 입넙은 : 갓양태가 넓은.

23) 짓갓 : 짓갓. 곧 깃(羽)을 꽂은 갓.

24) 눈천을 : 눈(眼)을.

25) 이맹이 : 이마.

26) 나 시상이고 : 내 세상이고.

27) 뇌엄 들려 : 잇몸 들려. 동이 틈을 뜻함.

28) 쏘곱으로 : 속으로.

29) 돌아오라 : 돌아와.

30) 또시 : 다시.

31) 어느 제민 : 언제면.

32) 어둑으리 : 어두우랴.

33) 제우 : 겨우.

34) 양지엔 : 얼굴엔.

35) 밧걸 : 밖을.

단 훗저구리 대홍대단(大紅大緞) 훗단치메³⁶⁾ 둘러입고 서대상지³⁷⁾ 옆의 차, 두릉베³⁸⁾에 영암(靈岩) 덕진드리 베진고달또 누려오라 송동지 영감(宋同知令監) 베[船]를 쫓고, 이물사공[船頭沙工]안티 말을 흐둬.

“송동지 영감을 만나레 가오니 발판드리나 놔주기 어쩝네까?”

이물사공이 얼른 발판을 놓고, 아기씨 조심조심 무거운 몸천[肉身]에 올라가노렌 흐난, 이물사공 베판드리를³⁹⁾ 안테레⁴⁰⁾ 들어등기여, 서대상지 옆에 찬 양⁴¹⁾ 감태(甘苔) ?뜬 머리 골골산산 허터놓고 아기씨 물레레 담방 빠져 이삼수월(二三四月) 죽순⁴²⁾ 버리듯 웨여야⁴³⁾ 얼음산[氷山] 구름 ?뜻⁴⁴⁾ 짓녹아집데다.

물때가 좋아지고 영펭바당[延平海] 실부름 나니, 송동지 영감(宋同知令監),

“이물사공 고물사공. 닷줄을 거두와 베 노라.”

이물닷 고물닷 등기여 깃발을 등등 올려 수수와당⁴⁵⁾ 베를 노았더니, 송동지 영감 총각머리 등에 진 아기씨가 이물코지로 벳발판을 발아⁴⁶⁾ 올라오다 물에 털어지는 듯, 눈에 펜식(變識)이 자꾸 뛰여 ‘필아곡절(必有曲折) 이상흔 일이로다.’

한고향(還故鄉)으로 돌아와 동김녕(東金寧) 포구(浦口)에 베[船]를 들여메여, 이 때 송동지 영감 말잭뜰아기[末女] 벳머리 아바님을 데동(帶同)하고 인도(引導)허여 가져 지드리단⁴⁷⁾ 난디듯이 아기씨가 허파[肺]에 부름이 든 듯 감태 ?뜬 머리 허붕쳐⁴⁸⁾ 놓고 부모성제간(父母兄弟間)도 몰라지고 동김녕 포구안(東金寧浦口內) 쌀대 ?뜬⁴⁹⁾ 물절데레⁵⁰⁾ 둘려들저.⁵¹⁾

송동지 영감 둘려들어 아기씨 허리를 붓잡아,

“이거 웬일이냐?”

데답(對答)하는 아기씨 말이,

“나는 광청?을 광청아기 궁네(宮女)로다. 시네(侍女)로다. 어야뒤야⁵²⁾ 살강깃소리⁵³⁾ 진바당 진소리로⁵⁴⁾ 어서 놀자.”

광청아기 혼령(魂靈)이 송동지영감 말잭뜰아기[末女]에 이탁(依託)이 뛰여, 그제야 송동지영감이 내 잘못을 알고,

“청춘(青春)의 원훈(怨恨)이나 풀어주저. 신의성방(神의刑房) 불르라.”

신의성방 불러라. 요왕국(龍王國)으로 광청아기 초흔(初魂) 이흔(二魂) 삼흔(三魂) 건져, 송동지

36) 훗단치메 : 훌치마.

37) 서대상지 : 대바구니.

38) 두릉베 : 불룩 나온 배.

39) 베판드리를 : 발판다리를.

40) 안테레 : 안으로.

41) 찬 양 : 찬 채로.

42) 죽순 : 박의 순(苟).

43) 웨여야 : 외쳐야.

44) 구름 ?뜻 : 같이. 같으듯.

45) 수수와당 : 사수(泗水) 바다. 깊은 바다의 뜻으로 씀.

46) 발아 : 타.

47) 지드리단 : 기다리다가.

48) 허붕쳐 : 풀쳐.

49) 쌀대 ?뜬 : 살대 같은.

50) 물절데레 : 물결로.

51) 둘려들저 : 달려들자고.

52) 어야뒤야 : 살강깃소리의 선·후렴구(先·後歛句).

53) 살강깃소리 : 닻 감는 소리.

54) 진바당 진소리 : 긴 바다 긴 소리.

영감 식찻아들[第三男] 세명 올려⁵⁵⁾ 축지방(祝紙榜) 흐고 아기씨 무친⁵⁶⁾ 간장 서린 간장 원성귀제맞이⁵⁷⁾ 올려 신전국태추태⁵⁸⁾로 일천간장(一千肝臟) 풀렸더니. 송동지 영감덱(宋同知令監宅)이 삽시에 거부(巨富) 데고, 생월(生月) 생명(姓名) 올령 축지방(祝紙榜) 고(告)흔 식찻아들 상시관(上試官)에 무과급제(武科及第)허여, 광청아기 혼령(魂靈)으로 만대유전(萬代遺傳)을 시기고 보니, 동김녕(東金寧) 송덱(宋宅)의 줄이 벗고 발이 범어 광청아기 광청일월(一日月) 만대유전(萬代遺傳)을 시기용고 신정국태추태로 수당클에 열두석시 중당클에⁵⁹⁾ 으[予] 숯석시⁶⁰⁾ 앗인제예⁶¹⁾ 삼석시 해[年] 넘는 철갈이로,⁶²⁾ 서대상지⁶³⁾ 안에 물멩지(—明紬) 강멩지(—明紬) 열두무색 출려 놓고 상고팡(上庫房)으로 우망(爲望)허여, 삼멩일(三名日) 기일제소(忌日祭祀) 일처이(一切) 흐오웁고 가지가지 벌어지던 조손(子孫)덜엔 초상(祖上)의 간장을 풀리민 조은 베실[官]도 신나수와⁶⁴⁾ 주고 엉는 제물(財物) 짜른⁶⁵⁾ 맹(命) 짜른 복(福)도 잊어주고 송덱(宋宅)에 전대전승(傳代傳承)을 시겨 옵던 송동지 영감(宋同知令監) 광청아기 광청일월 본산국 신산국이⁶⁶⁾ 데옵네다. 난산국이 데옵네다.

— 濟州市 龍潭洞 男巫 安仕仁 口誦

동김녕 송댁의 송동지 영감 송선주가 살았을 때, 사또의 명을 받아 선달 그믐 당하여 송동지 영감이 서울에 진상을 바치러 갑니다. 산에서 나는 버섯 바다에서 나는 우무 청각 미역 오징어를 진상바쳐두고 송동지 영감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광청고을에 머물고 싶어, 광청고을 허정승댁에 유숙합니다. 저녁상을 받고 나니 날은 먹장같이 어두워지고 창문 밖을 바라보니 모든 집안이 초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초이경이 넘어 삼경이 가까와도 잠이 안 듭니다.

갑갑하게 앉았다가 마당에 나와 동서로 사방을 두리번두리번 바라보니, 이상하게도 문 밖 사랑방에 희미한 불빛이 비칩니다. 송동지 영감이 발자국을 죽여가며 숨결소리를 낮추어 가며 문 가에 차차 몸을 붙여 사랑방을 바라 보니, 어여쁜 아기씨가 총각머리를 풀어놓고 앉아 뭘을 생각하는 듯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눈이 마주칩니다. 송동지 영감이 아기씨 모르게 뒤돌아서려 하니, 창문을 열면서 아기씨가 말을 하되,

“제주 송동지 영감님, 할 말이 있사오니 어서 바삐 문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송동지 영감은 어찌할 수 없어 마음이 충천하고 가슴이 뛰어 온 몸을 달달 떨면서 가던 몸을 돌려 아기씨 방안으로 들어가 몸을 움츠려 앉았더니, 아기씨가 말을 하되,

“겁내지 말고 편히 앉으십시오.”

미리 올 줄 안 듯이 술상을 차려놨다가 얼른 가져다 놓고,

“내가 이 밤중까지 영감님이 나올까 하여 창문 밖을 살피던 차에 나와 뜻이 맞은 듯이 영감님

55) 세명 올려 : 양자 세움의 뜻. 성명의 잘못.

56) 무친 : 맷한.

57) 원성귀제맞이 : 원성기도제맞이. 굿을 일컫는 말.

58) 신전국태추태 : 무악기(巫樂器) 소리를 일컫는 말.

59) 중당클 : 삼당클굿을 뜻함. 곧 삼방(마루방) 세 벽에 당클(祭棚)을 매고 하는 큰굿.

60) 으[予] 숯석시 : 여섯 석(席).

61) 앗인제 : 앗은 제(祭).

62) 철갈이 : 신년제명(新年祭名).

63) 서대상지 : 대바구니.

64) 신나수와 : 나수와. 곧 나게 하여, '신-'은 접두사.

65) 짜른 : 짧은.

66) 신산국 : 본산국 또는 난산국과 같은 뜻으로, 조운(調韻)을 위한 조어(造語).

이 나오셨는데, 이제까지 잠이 안 들어 오죽 심심하여 여기까지 왔습니까? 잠도 안 오고 하니 이 술 한잔을 드시고 나의 뜻대로 심심풀이나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서 그리 합시다.”

한 잔 술을 거푸 마셔 술이 만족한 듯 한 때, 아기씨가 말을 하되,

“나는 허정승의 따님으로 총각머리를 등에 진 처녀이지만, 광청고을 안 처녀의 몸으로 장차 부모의 명령대로 혼인을 하여야 할 몸이고, 그러니 앞으로 혼인을 하려고 하면 내가 그 행동을 한번 해 보고 싶으니, 서로 반대로 나의 의복은 영감이 입고 영감의 의복은 내가 입어서 남이 자는 야밤에 단 둘이서 이날이 새도록 색시놀이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술에 만족한 송동지 영감은 대답만 ‘예예’ 하다 보니, 어느 사이에 자신의 몸이 변색이 되는데, 연분홍저고리에 대홍대단 연분홍치마 구슬족두리 꽃족두리가 머리 위에 올린 것 같고, 눈 앞에는 보니 갓양태가 넓은 갓에 백도포를 둘러 입어 부체를 들고 앞을 막아 서 있어서, 서로 눈을 바라보니 인연이 꼭 들어맞은 듯합니다.

아기씨도 올바른 정신이 간 곳 없고, 물명주 한삼 붙잡아 얼음 같은 손길을 마주 잡았더니, 이마의 족도리도 벗어지고 연분홍 다흥치마도 벗어져, 아기씨 넓은 갓도 벗어지고 백도포를 벗어던져 꿈결같이 지나는 것이 송동지 영감도 세상이 내 세상이고 광청아기도 영감의 신원과 원정을 다 들어줍니다.

먼동이 터 올 때 개 쥐도 모르게, 송동지 영감은 자기 이불 속으로 돌아와 ‘장차 이 일이 어찌 될 것인가.’

아침 밥상이 들어오고, 허정승을 이별하여 먼 문 밖을 나서서 영암 덕진다리 베진고달또 포구 안에 올 때까지 자꾸 생각하여도 꿈인가 생시인가 모릅니다.

베진고달또에 배를 놓아 고향으로 돌아와 동헌 안 관원에게 원정을 들고, 다시 두번 째 서울 진상을 바치고 내려올 때, 광청고을 허정승댁에 다시 유숙하는데 ‘이날이 언제면 어두우리.’ 하고 기다리다 그날이 겨우 어두워지니, 광청아기 사랑방으로 달려듭니다.

달려들어 보니, 아기씬 옥 같은 얼굴에 서산에 비 내리듯 눈물을 흘리면서.

“자,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리까?”

아기씨 흰 얼굴은 검은 얼굴 되고 배는 큰 항아리같이 불고, 송동지 영감 배도포 자락을 붙잡아 놓을 줄을 모른 채, 우는 것이 초이경이 가까와집니다.

그 때 시절, 육지 사람 제주 못 오고 제주 여자 육지 못 갈 때니, 송동지 영감은 아기씨가 도포자락 놓은 틈을 타서 얼른 창문 밖에 내달아 아무 말 없이 영암 베진고달또에 내려와 배 밑에 가 앉아 있습니다.

아기씨는 이날 밤을 새우면 아버님 손에 죽을 생각에 흰비단 홀저고리에 대홍대단 홀단치마를 둘러 입고 대바구니를 옆에 차고, 불룩 나온 배를 끌어 영암 덕진다리 베진고달또로 내려와 송동지 영감의 배를 찾고, 이물사공에게 말을 하되,

“송동지 영감을 만나러 가니 발판다리나 놓아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물사공이 얼른 발판을 놓으니, 아기씨가 조심조심 무거운 몸에 올라가는데, 이물사공이 발판다리를 안으로 들어 당겨 버리니, 대바구니 옆에 낀 채로 감태 같은 머리를 풀어헤치며 아기씨는 물에 풍덩 빠져 이삼사월 박의 순을 버리듯 외쳐봐야 얼음산에 구름같이 녹아 버립니다.

물때가 좋아지고 연평바다에 실바람이 부니 송동지 영감이,

“이물사공 고물사공아 닻줄을 거두어 배를 놓아라.”

이물닻 고물닻을 당겨 깃발을 둥동 울려 사수바다로 배를 놓았더니, 송동지 영감은 총각머리를 등에 진 아기씨가 이물 끝에서 배 발판을 밟아 올라오다가 물에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하여,

“필유곡절 이상한 일이로다.”

의심이 듭디다. 고향으로 돌아와 동김녕 포구에 배를 들여매는데, 이때 송동지 영감 막내딸아기가 뱃머리에서 아버님을 대동하고 돌아가려고 기다리다가 난데없이 아기씨가 허파에 바람이 든 듯 감태같은 머리를 풀쳐 놓고 부모형제간도 몰라보고, 동김녕 포구 안의 살대같은 물결로 달려들려고 합니다.

송동지 영감이 달려들어 아기씨 허리를 붙잡고,

“이게 웬 일이냐?”

대답하는 아기씨 말이.

“나는 광청고을 광청아기 궁녀로다. 시녀로다. 어야디야 살강깃소리 긴바다 긴소리로 어서 놀자.”

광청아기 혼령이 송동지 영감 막내딸아기에 의탁했음을 알고, 그제야 송동지 영감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청춘의 원혼이나 풀어주자. 심방을 불러라.”

심방을 불러다 용왕국으로부터 광청아기의 초혼 이흔 삼흔을 건져내어 송동지 영감 셋째 아들을 양자로 세워 축지방을 올리고, 아기씨가 맷힌 간장 서린 간장 원성기도 제맞이 굿을 하여 무악기로 일천간장을 풀었더니, 송동지 영감댁이 삽시에 거부가 됩니다. 양자로 올려서 지방을 쓰고, 축문을 올려 축지방을 고한, 셋째 아들은 서울로 가 무과급제를 하고, 광청아기 혼령으로 만대유전을 시킵니다.

동김녕 송댁은 줄이 뻗고 발이 뻗어 광청아기 광청일월을 만대유전시킵니다. 이 신은 무악기로 사당클굿에 열두석시 중당클굿에 여섯석시 앉은제에 삼석시로 놀리는 조상이고, 해넘으면 철갈이로, 대바구니 안에 물명주 강명주 열두 물색을 차려 상고방으로 위하여 삼명일 기일제사 때 모십니다. 이렇게 가지가지 벌어지던 자손들이 조상의 간장을 풀리면 좋은 벼슬도 하게 하고 없는 재물 짧은 명 짧은 복도 이어줍니다.

송댁에 전대전승을 시켜주던 송동지 영감 광청아기 광청일월 본풀이입니다.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 pp.408-415.